

에도시대의 기행문학과 온천 문화*

-아리마 온천을 중심으로-

박 찬 기**

(e-mail: parkchan@mokpo.ac.kr)

目 次

1. 들어가며
 2. 아리마 온천의 역사와 기행문학
 - 2-1. 아리마 온천의 역사
 - 2-2. 온천안내서와 기행문학
 3. 『有馬日記』, 『滑稽有馬紀行』에 나타난 온천문화
 - 3-1. 탕치 여행의 숙소와 탕치 시스템
 - 3-2. 유나의 역할
 - 3-3. 定幕湯과 合幕
 4. 맺음말
-

1. 들어가며

현재 일본에는 3천 곳, 2만 개의 온천이 있다고 일컬어진다. 그 중 아리마, 구사쓰, 게로는 에도시대부터 교통로의 발달과 함께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진 곳으로 주목되어 왔다.

세이쇼 나곤의 『마쿠라노소시』에도 교토의 귀족 여성들이 알고 있었던 온천에 대하여 「온천은 나나쿠리노유. 아리마노유. 다마즈쿠리노유」¹⁾라는 기술이 있어, 온천이 탕치의 공간으로서 일찍부터 그 효능이 입증되어졌음을 알 수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A00118)

** 목포대학교 교수 일본근세문학

1) 「湯はななくりの湯。有馬の湯。玉造の湯」清少納言『枕草子』日本古典文学全集、117段、p247.

있다. 또 무로마치시대의 승려 반리 슈쿠(万里集九)는 시문집 『바이카무진조』(梅花無尽蔵)에서 “우리나라 60 남짓의 주(州)에는, 모든 주에 영험한 온천이 있고, 그 중 으뜸은 시모즈케(下野)의 구사쓰, 신요(津陽)의 아리마, 히슈(飛州)의 게로 이 세 곳이다”²⁾라고 기술하고 있고, 에도시대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도 『하야시라잔시슈다이산세난니치로쿠』(林羅山詩集第三西南日録)에서 에도시대 세 온천의 영험함과 탕치의 효능을 설파하고 있다.

또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걸쳐 유행한 온천 반즈케(番付) 『쇼코쿠온센코노카가미(諸国温泉功能鑑)^{쇼코쿠온센코노의ふかがみ}』는 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평판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중요시되었다. 당시의 온천 반즈케에는 오제키(大関)가 가장 상위로 동쪽의 오제키는 조슈 구사쓰(上州草津), 세키와키(関脇)는 야슈 나스(野州 那須), 고무스비(小結)는 신슈 스와(信州諏訪)이고, 서쪽의 오제키는 셋슈 아리마(摂州有馬), 세키와키, 고무스비에 각각 단슈 기노사키(但州城崎), 요슈 도고(予州道後)가 랭크되었다. ³⁾

본 논문에서는 이미 언급한 세 온천 중 아리마 온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도시대에 기록된 온천 「여행기」, 「기행록」 등을 소개하고, 그 중 모토오리 오히라(本居大平)의 『아리마닛키(有馬日記)』(1782년), 오네 쓰치나리(大根土成)의 『곶케아리마기코(滑稽有馬紀行)』(1827년)를 중심으로 에도시대의 온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대중화의 과정을 진행해 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 고찰하고자 한다.

또 탕치를 중심으로 한 온천의 다양한 기능 즉, 온천문화가 당시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한다.

2. 아리마 온천의 역사와 기행문학

2-1. 아리마 온천의 역사

『滑稽有馬紀行』(1827년)의 첫머리에 (조메이 천왕이 지으신 노래. 아리마의 염천에 초승달이 비친 모습을 보니 불편한 몸도 치유되는 칠일 칠일에) 「舒明

2) 本邦六十余州.每州有靈湯.其最者下野之草津.津陽之有馬.飛州之湯島.三処也.
万里集九 『梅花無尽蔵』(연도 미상)(『続群書類従』第十二輯下、1927.) p987.

3) 에도시대에는 오제키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스모에서도 명치 이후에 요코즈나가 나타난다. 근대 이후 동쪽의 요코즈나는 아타미, 서쪽의 요코즈나는 벳푸가 랭크된다.
木暮金太夫編 『錦絵にみる日本の温泉』 国書刊行会、2003. 図77. 図81 참조.

帝御製 三ヶ月の塩湯にうつる影見ればかたわもなをる七日七日に」⁴⁾라는 기술과 같이, 아리마 온천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제 34대 조메이 천황(593~641년)의 무렵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니혼쇼키』의 「조메이키(舒明記)」에 631년 9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86일 간⁵⁾의 탕치의 기술이다.

이하 에도시대까지의 아리마 온천 역사를 연표형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시대

오나무치노 미코도(大己貴命)、스쿠나히코노나노 미코도(少名彦命) 두 신이 까마귀가 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온천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아스카(飛鳥)시대

631년 조메이 천황의 아리마 온천 행차

647년 고도쿠 천황의 아리마 온천 행차

-나라(奈良)시대

724년 교키쇼닌(行基上人)이 온천을 재홍하기 위하여 温泉寺 등 사원을 건립함.

-해안(平安)시대

1097년 홍수로 인하여 황폐함.

1191년 吉野山の 스님인 仁西上人에 의하여 아리마 온천이 재홍됨. 야쿠시너라이(薬師如来)를 수호하는 十二神将에 연유하여 「十二坊」를 만들.

-가마쿠라(鎌倉)시대

1203년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가 아리마를 방문한 후, 12회에 걸쳐서 입욕함.

-무로마치(室町)시대

1385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아리마를 방문 입욕함.

1461년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아미타 사옥을 건립하여 재홍을 이룸.

13~16世紀에 걸쳐서 귀족이나 각지의 호족 등 많은 사람이 아리마를 방문하여 번성함.

1564년 아시카가 요시테루(足利義輝)가 아리마를 방문 입욕함.

4) 大根土成 『滑稽有馬紀行』(1827)(板坂耀子編 『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7.

5)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p232.

-아즈치 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

1575年 큰 화재로 절, 민가 등이 소실되어 황폐해짐.

1579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출정을 위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리마의 도로 정비를 지시함.

1583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리마 온천의 재흥을 위하여 보호와 원조를 지시함.

1594年 히데요시가 아리마에 별장을 지음.

1596年 7월12日 밤, 긴키(近畿) 대지진이 발생하여 아리마에서는 온천 숙소, 민가가 소실되고, 히데요시의 별장도 파괴됨. 온천의 온도가 상승하여, 입욕 불가능하게 됨.

1597年 히데요시의 지시로 지진으로 파손된 온천을 2년간의 공사로 재흥됨.

1598年 신출 온천 (上之湯, 願の湯)에 히데요시의 별장을 신축하지만 8월18日에 히데요시는 사망함.

-에도(江戸)시대

1621年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입욕하고 「有馬温泉記」를 저술함.

1658年 8월13日, 아리마에 대홍수가 발생함.

1661~72年, 瑞宝寺를 창건함.

1695年 6월29日, 温泉寺가 화재로 소실됨.

1697年 湯泉神社를 재건하고, 8월13日 천궁.

1703年 11월29日 대화재로 아리마 전역이 소실됨.

1712年 念仏寺를 재건.

1770年 松岡雄淵이 「有馬六景」을 선정함.

1773年 대 화재로 湯泉神社, 薬師堂, 極楽寺 등이 소실.

1827年 頼山陽, 아리마에 입욕함. 그의 친구로 중국의 문인인 江芸閣이 「日本第一神靈泉」란 비석을 세움.

1836年 대 기근으로 아리마 온천의 숙소가 반감됨. 6)

2-2. 아리마의 온천 안내서와 기행문학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원에 힘입어 온천수의 보호, 온천 주위 하천의 개수 공사, 온천 개축 등의 과정을 거친 아리마 온천은 에도시대에 이르러 더욱 번성하였다. 또 막부의 직할령이기도 한 아리마 온천은 귀족이나 지방 영주, 무사, 승려, 의사, 문인 등이 자주 들르는 탕치와 오락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6) 神戸有馬温泉の旅館竜泉閣 홈페이지 참고 <http://www.ryuusenkaku.jp/> 등에 의함. 필자에 의하여 적절히 첨삭되었음.

또 1700년대 무렵에는 도로 및 여인숙의 정비, 치안 등 제반 시설의 정비로 인하여 일반 도시민도 신사나 절의 순례, 당지의 여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중 아리마 온천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당지의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교토, 오사카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점도 작용하여 양생의 온천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이리하여 온천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온천을 알리고 소개하는 실용본위의 온천안내서가 다수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 중 아리마 온천의 여행안내기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쿠가와 장군 3대에 걸쳐 시장을 담당한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셋슈아리마온토키(摂州有馬温湯記)』(1621년)를 비롯하여, 지역안내서의 성격을 띤 구로가와 도유(黒川道祐)의 『아리마치시(有馬地誌)』(1664년), 히라노 마사나가(平子政長)의 『아리마시구레(有馬私雨)』(1672년), 아리마 곤사부로(有馬権三郎)의 『아리마고카가미(有馬小鑑)』(1675년), 세하쿠도 교후(生白堂行風)의 『무카이유아리마메쇼카가미(迎湯有馬名所鑑)』(1678년), 기쿠치 고로베(菊屋五郎兵衛)의 『이나노사사아리마고카가미(稻野笹有馬小鑑)』(1685년),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의 『아리마유야마키(有馬湯山記)』(1711년), 유오쿠보 가몬(湯奥坊かもん)의 『조호아리마데비키구사(増補有馬手引草)』(1717년), 아리마 에나미(有馬榎並)의 『아리마야마온센유라이(有馬山温泉古由来)』(1728년), 야스미 로안(八隅蘆菴)의 『료코요진슈(旅行用心集)』(1810년) 등이 있어 당시 아리마 온천의 번성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온천안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행문의 형태로 기술된 기행문학이 나타난다. 오사카의 시인 이노우에 후몬(井上布門)의 『아리마노닛키(有馬之日記)』(1738년), 모토오리 오히라(本居大平)의 『아리마닛키(有馬日記)』(1782년) 등의 작품이 있다. 또 오사카의 가부키 작자, 니시자와 잇푸(西沢一鳳)의 여행 일기 『아리마온센노 기코(有馬温泉の紀行)』(1850년)에는 당시의 온천욕사의 삽화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삽화 중심으로 묘사되는 『셋츠메쇼즈에(撰津名所図会)』(1798년)도 성립되었다.

이어서 오네 쓰치나리(大根土成)의 『곶케아리마기코(滑稽有馬紀行)』(1827년)는滑稽本⁷⁾의 체재로 아리마 온천을 소개한 안내서로서, 선행 문학인 시키테이 산바(式亭三馬)의 『우키요부로(浮世風呂)』(1805년)나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의 『도카이도추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1801년) 등의 영향 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에도시대의 다양한 온천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7) 에도 후기 소설의 한 종류로 대부분은 도회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단편적으로 그리고 있는 통속소설을 일컫음.

3. 『有馬日記』, 『滑稽有馬紀行』에 나타난 온천문화

다수의 온천 기행 중, 모토오리 오히라의 『有馬日記』(1782년)에는 아리마에서의 매일 매일의 생활을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다. 온천기행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모토오리도 자신의 병상의 술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온천여행의 출발을 기술한다. 온천지의 풍물과 온천장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과의 흥허물 없는 대화, 자신의 병든 몸 상태와 온천욕을 통한 회복 정도도 비교적 냉정하게 기술하고 있다.

오네 쓰치나리의 『滑稽有馬紀行』(1827년)은 교토의 에라이야 다로스케(惠来屋太郎助)와 무위도식하는 사이로쿠(才六)의 콤비에 의한 아리마 온천 여행기에 속어 노래(狂歌)⁸⁾를 섞어서 묘사하고 있다. 기행 중에 길을 헤매기도 하고, 아리마 온천에서는 욕조에 빠져 버둥거리기도 하고, 온천에서 일하는 여인이나 다른 손님들과의 주고받는 가벼운 대화 등 그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묘사를 통하여 에도시대 온천장에서의 숙박과 탕치의 시스템, 유나(湯女)의 존재, 탕치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또 온천보다도 유나(湯女)에 관심이 끌리는 음흉한 콤비의 우스꽝스러운 대화 속에 인간미 넘치는 센스를 엿볼 수도 있다.

오네 쓰치나리는 에라이야 다로스케와 사이로쿠가 아리마 탕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사 「이것 교토 오조 근방에 사는 에라이야 다로스케라는 것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셋슈 아리마의 온천은 만병의 치유에 효험이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이렇다 할 병은 없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병이 있어 입탕을 위한 여행을 하려고 한다. 또 이곳에 관동지방에서 온 백수 사이로쿠라는 자가 있다. 이 자를 동반하고 아리마 탕치 여행을 목표로 한다.⁹⁾

滑稽本の 체재를 취하고 있는 『滑稽有馬紀行』에는 에라이야 다로스케(츄코미¹⁰⁾ 역할)와 사이로쿠(보케¹¹⁾ 역할) 콤비의 골계를 중심으로 「道中記」의

8) 해학, 골계를 노래한 비속한 단가. 특히 에도시대 초기, 중기에 유행하였으며 속어를 사용한 노래를 말함.

9) 詞 「是は都五条辺りに住居する惠来屋太郎助とは我事なり。扱も摂州有馬の温泉は諸病を治するよし。承り及び候間此身は然るべき病のあらず候へども。大酒と申一病により。入湯に參らばやと存候。亦ここに東国方より出たる食客才六と申者御座候間。此者を召連、有馬入湯にこそろざし候。

주 4)와 같은 책. p8.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여행자 콤비의 골계담은 만담의 재료로 이용되기도 하며 에도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有馬日記』, 『滑稽有馬紀行』의 묘사를 중심으로 에도시대 온천장에서의 숙박과 탕치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3-1. 탕치 여행의 숙소와 탕치 시스템

모토오리 오히라는 『有馬日記』(1782)에서 아리마 온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온천수의 용출은 한 곳이지만 상부의 중간을 이쪽저쪽으로 나누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남향을 <이치노유>라 하고, 북쪽을 <니노유>라 한다. 욕조는 산속의 웅달샘과 같아서 돌담을 친듯하고 유츠보라 한다. 가로 세로 직경 3미터 정도이고, 깊이는 1미터 남짓으로 보인다. 이치노유, 니노유 같은 형태이다. 바닥은 자갈뿐으로 매우 투명해서 조금도 탁하지 않다.¹²⁾

또 약간의 시간적 거리를 둔 야스미 로안(八隅蘆菴)은 『旅行用心集』(1810)에서 아리마 온천에서의 숙박과 온천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리마 온천의 욕실은 한 지붕으로 욕조의 깊이는 약 1미터 30센티, 가로 약 7미터, 세로 4미터이고, 바닥은 돌이 깔려 있다. 그 돌 사이에 대나무 통을 끼워 그 안에서 온천수가 나온다. 맛은 짜다. 중간에 나무판으로 벽을 갈라 남쪽이 제 1탕, 북쪽이 제 2탕이다.

숙소는 20채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외의 집들은 여행자가 묵는 숙소라 한다.

20채의 집마다 두 명의 여인이 있다. 한 사람은 오유나(大湯女)라 하고 통칭 가카(嫁家)라 부른다. 한 사람은 고유나(小湯女)라 한다. 이는 젊은 여인이

10) 만담 등의 예능에서 상대방의 말실수를 트집 잡아 끈질기게 파고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11) 만담 등의 예능에서 츗코미의 상대역으로 우수팡스런 실수를 연발하는 역할.

12) 湯はわ(涌)き出る所一所なれど、うへ(上)の屋の中をかなたこなたへだて(隔)ゝ、二かたよりいるなり。南にむかへるを、「いちのゆ」(一の湯)といひ、北よりいるを「二のゆ」といふ。湯船、山の井なんどのやうにて、石垣にしめぐらしたるを、湯つぼ(壺)となんいふめる。たて(縦)もよこ(横)もわたり(徑)九尺ばかり、ふか(深)さは三尺あまりあらむとぞ見ゆる。いちのゆ、二のゆ、同じさまとん。底はさざれ石(小石)のかぎりにて、いとよくす(澄)みわたりて、いさゝかにごれる所なきが、
本居大平『有馬日記』(1782) (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p70~71.

다. 집안 대대로 통칭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명의 유나는 탕치하는 손님에게 탕치의 주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손님을 송영한다. 여러 지역의 탕치 손님이 많고 혼잡하지만 탕치의 주기는 변함이 없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리마 온천장의 모습이 탕치를 위한 온천과 숙소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유나에 의하여 탕치의 주기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또 『旅行用心集』에는 온천 탕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탕치의 방법으로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하루에 3,4 번으로 한정해야 한다. 무리가 없으면 5,7 번까지는 무방할 것이다. 노인 또는 허약한 사람은 오랜 시간의 입욕을 삼가야 한다. 또 오랜 지병이 있는 자는 1회¹⁴⁾,2회로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3,4회 또는 1,2개월의 탕치가 필요하다.

탕치 중 병자는 물론 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하고 삼가야 할 것은 포식, 지나친 음주, 남녀 관계, 찬 음식 섭취 등이다. 또 탕에서 나오면 온 몸의 모공이 열리는 까닭에 외부로부터의 병을 얻기 쉽다. 따라서 심산의 찬바람을 쐬거나, 깨끗한 물에 발을 차게 하거나 혹은 바람이 불 때 수면을 취해서는 안 된다.¹⁵⁾

탕치의 방법으로 치료 기간 중 포식, 지나친 음주, 남녀 관계 등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그러나 탕치의 주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미 인용한 『滑稽有馬紀行』 첫머리의 (조메이 천황이 지으신 노래. 아리마의 염천에 초승달이 비친 모습을 보니 불편한 몸도 치유되는 칠일 칠일에)¹⁶⁾라는 노래에 대하여, 이다사카 요코씨는 주석을 통하여 “조메이 천황이 지으심, 이와 같은 노래는 정사에는 없다. 그러나 속세에 전해지는 것으로, ‘인왕 35대 조메이 천황 3년 가을 9월에 셋츠 아리마산의 온천 동굴에 행차하셨

13) 八隅蘆菴 『旅行用心集』(1810)(『生活の古典双書』八坂書房、1972.)pp81~82.

14) 히도마와리(첫 번째 7일), 후다마와리(두 번째 7일)의 탕치 시스템이 정해진 시기임으로, 1회는 7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八隅蘆菴 『旅行用心集』(1810)(『生活の古典双書』八坂書房、1972.)pp79~80.

16) 「舒明帝御製三ヶ月の塩湯にうつる影見ればかたわもなをる七日七日に」

주 4)와 같은 책, p.7.

다. 이 온천수의 용출하는 것이 마치 바위를 집어 풀을 엮은 듯한 선경이다. 때 마침 초승달이 온천의 옥조에 떠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것이야말로 인민의 병고를 치유하는 온천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황송하게도 지으심. 초승달이 염천에 비친 모습을 보니 불편한 몸도 치유되는 칠일 칠일에, 초승달은 반달로서 반원의 형태이다. 그렇지만 7일, 7일 하면서 네 번을 거듭하여 이 탕에 그림자를 비추면 만월인 둥근 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일 것이다.’(『七湯のしおり』 (1811년))와 같이 널리 믿어져 왔다.”¹⁷⁾(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고 언급하고 있다. 즉 온천장에서의 탕치는 7일을 기준으로 네 번 거듭되는 온천욕에 의해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일 단위의 탕치의 예는 에도시대에 보편화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7일 단위의 탕치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세로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전해지는 대표적인 說教 중의 하나인 『오구리』는 구마노의 유노미네 온천과 관련된 전승이 그려져 있다. 이하 이 작품의 개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라마(鞍馬) 비샤몬텐의 기원에 의하여 태어난 니조다이 나곤 가네이에의 적자 오구리가 어느 날 구라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조로가이케(深泥池)의 뱀이 미너로 둔갑한 미모에 반하여 관계를 갖는다. 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오구리를 유배시키나 어머니의 조언으로 히다치(常陸)의 영지로 보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후지라는 한 상인이 찾아와 무사시 사가미의 관리 요코야마 집안의 데루테 히메(照天姫)라는 미모의 여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오구리는 상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전하고, 그 답장을 받아 여성과 혼인하게 된다. 데루테 히메 집안인 요코야마(横山) 일가는 화가 나서 오구리와 열 명의 수하들을 함께 독살하여 오구리는 우에노가하라(上野原)에서 토장하고 열 명의 하인들은 모두 화장한다.

요코야마는 데루테에 대한 분노 풀리지 않아 오니오(鬼王), 오니즈구(鬼次) 형제에게 명하여 사가미 강(相撲川)에 수장하려 하지만 형제의 도움으로 포구에 표착한다. 무라기미노 다유(村君の太夫)는 그녀를 구명하여 돌봐주지만 외출 중 그의 처가 인신매매상에게 팔아버린다. 그런 후 미노 아오하카(青墓)의 만물상에서 히다치 고타기(常陸小萩)라 불리며 힘들고 험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한편 저승으로 간 오구리 일행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간다. 염라대왕은 오구리의 열 명의 수하들이 주인을 생각하는 지성에 감복하여 다시 사바세계로 돌려보낸다. 후지사와(藤沢)의 승려가 우에노가 하라의 묘지를 지나가자 구마

17) 주 4)와 같은 책, p276.

노(熊野)의 유노미네(湯の峰)의 온천에 들어가게 한다면 정도에서 약탕을 주겠다는 대왕님의 자필 도장을 확인한다. 아귀아미(餓鬼阿弥)가 오구리의 묘에서 나타난 것을 본 후지사와 승려는 엄라대왕 자필 편지를 읽고 오구리를 수레에 태워 “이 수레를 한번 끄는 것은 천명의 스님을 모아 경을 읽어 죽은 사람을 공양한 것과 같고 두 번 끄는 것은 만 명의 스님을 모아 죽은 사람을 공양한 것과 같다”는 표찰을 붙여 후지사와 승려 자신도 수레를 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온 오구리는 미노국 아오하카에 도착한다.

테루테는 남편의 생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인에게 요청하여 남편의 공양으로 세키테라(関寺)까지 수레를 끌고 왔다. “구마노 혼구우(熊野本宮) 유노미네에 들어가 병이 완전히 나으면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룻밤을 묵어주세요.”라고 아귀아미의 가슴에 단 표찰이 쓰여 있다. 오구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구마노 유노미네 온천에 도착하게 된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유노미네 온천에 도착한 오구리는 온천욕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오구리』의 배경에는 구마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각지를 순례하는 수도승의 활약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구리가 유노미네 온천에서의 탕치를 통하여 완치되었다는 것이고, 그 온천욕의 기간이 “첫 번째 7일간의 온천욕을 통하여 양 눈이 보이고, 두 번째 7일간의 온천욕을 통하여 귀가 들리고, 세 번째 7일간의 온천욕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일곱 번째 7일간 탕치한 결과 오구리의 병은 완치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¹⁸⁾는 것으로 에도시대 이전부터 이미 7일간의 탕치 시스템이 일반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탕치에 있어서 일회 7일의 시스템은 의약이 사원의 의승(医僧)들에 의하여 진찰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불교의 행사나 투약이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탕치 시스템 또한 불교와 결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유나(湯女)의 역할

이미 인용한 『旅行用心集』에 의하여 아리마 온천 유나(湯女)¹⁹⁾의 존재에

18) あいす ゆ こと い りやうかん あ い みみ き
 18) なにか愛洲の湯の事なれば、一七日御入りあれば、両眼が明き、二七日御入りあれば、耳が聞こえ、
い もの いしやう なな しやく ふんゆた もと をくりどのの
 三七日御入りあれば、はや物をお申あるが、以上七七日と申には、六尺二分豊かなる、元の小栗殿と
 おなりある。

『をぐり』(信多純一、阪口弘之 校注(1999)『古浄瑠璃 説教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p230.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온천에 유나의 존재가 필요한 것일까?

『有馬日記』에는 유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유나라고 해서 온천을 안내하고 유카다비라를 받아주는 등 손님 시중을 드는 여인. 한 집에 두 명씩이다. (중략) 단가, 장가 등 독특한 노래 소리로 소리한다.²⁰⁾

또 『滑稽有馬紀行』을 통하여 유나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1)



그림(2)



그림(1), (2), (3)의 유나에 대한 설명을 번각,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9) 20채의 집마다 두 명의 여인이 있다. 한 여인은 오유나(大湯女)라 하고 통칭 가카(嫁家)라 부른다. 한 여인은 고유나(小湯女)라 한다. 이는 젊은 여인이다. 집안 대대로 통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명의 유나는 탕치하는 손님에게 탕치의 주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손님을 영접, 송영한다.

八隅蘆菴 『旅行用心集』 (1810)(『生活の古典双書』 八坂書房、1972.)pp81~82.

20) ゆな(湯女)といひて湯のあない(案内)し、ゆかたびら(内衣)とりまかなひなど、まろうど(客)をあへしらふ女、ひとやどす家毎に二人づゝなんをる。(中略)小うた、長うたなど、こゑ(声)おかしうてうた(謡)ひたり。

本居大平 『有馬日記』 (1782) (板坂耀子編 『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 80.

그림(1) 아리마 유나의 그림

오유나 일명 가카유나. 나이 40세 정도에서 54,5세까지 가카유나라 칭한다.

고유나 일명 무스메유나. 다른 이름 오후지, 히카리의 종류. 전례대로 온천 숙소의 통명을 계승한다. 나이 12,3세부터 22,3세까지. 단 12,3세의 유나라 해도 눈썹을 지우고, 이에 검은 칠을 하고, 오비를 앞으로 맨다. 술자리에 불러 오면 아리마부시를 부르고 북을 치며 춤을 춘다. 그 모양이 고풍으로 우아하며 흥을 돋운다. 21)

그림(2) 고유나 아리마부시를 추는 그림

말도 아닌데 손님이 타기를 원하는 무스메유나 북을 치며 춤을 추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서

츠치나리(土成)

창가에는 정이 담긴 아리마라 부르지만 대접이 서투르게 술 따르는 여인 無着者²²⁾

그림(3)



21) 有馬湯女の図 大湯女 一名かか湯女. 年四十才斗より五十四五才まで、かか湯女と呼ぶ。小湯女一名娘湯女。亦名おふじ、お光の類。其宿の前前より通名を受つぐ。年十二三才より二十二三才まで。但し十二三才の湯女にても、眉を取、歯にかねをつけ、帯を前にてむすぶ。酒の席に呼ば有馬節をうたふて太鼓を打、舞ふ。其さま古雅にして興をますなり。 주 4)와 같은 책.p4.

22) 小湯女有馬ぶしを舞ふ図 馬ならで客乗たがる娘湯女うつや太鼓にうつつぬかして 土成 唱歌にはなさげ有馬と唄へども杓子あたりもわるひ酌人無着者 주 4)와 같은 책. p48.

그림(3) 아리마 온천 숙소에서 다로스케가 하녀에게 유나에 대하여 묻는 그림.

아리마의 온천욕에 앞서 유나의 욕실에 화대를 묻는 음흉한 손님 土成 23)

온천장에서 유나의 역할이 탕치 손님의 옷을 받아주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것으로, 한 온천 숙소에 오유나, 고유나 두 명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흥의 장소에서는 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춤을 추며, 술을 따르기도 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유나의 본업은 탕치 손님의 온천욕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지만, 온천장에서 유흥의 자리에 응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역할도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매춘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또 『滑稽有馬紀行』에는 다로스케(이하 다로라 약칭한다)와 사이로쿠(이하 사이라 약칭한다)에 의한 유나 매입 교섭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이 「언니. 저기 부엌에 있는 여인은 이집 며느리인가, 딸인가, 나이는 몇인가? 하녀 스키 「네, 열여섯입니다. 사이 「나이는 젊어서 아직 미혼인줄 알았는데 일찍 눈썹을 지웠네. 정부가 있었나. 그 사내의 얼굴을 보고 싶군. 스키 「아니요 저 아이는 고유나라 합니다. 사이 「뭐, 정부가 없는 유나라니 무엇을 말하는가. 스키 「저 아이는 온천에서 일을 하는 무스메 유나라 합니다. 사이 「아가씨라니 감사한 일이군. 오늘 밤 차지하고 싶군. 다로 「언니, 저 남자보다 나에게 붙여주게. 오늘 밤 불러올 수 있을까. 스키 「네, 밤에 일만 마치면 올 수 있습니다. 다로 「화대는 얼마인가. 스키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다로 「언니, 내가 먼저니까, 나에게 데려오게. 스키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두 분께 맞춰드리죠. 사이 「남자 둘 사이에 여자 혼자 와서는 곤란한데, 추가로 다른 여인은 없는가. 스키 「네, 한 사람으로 부족하시다면 가와노야의 오미쓰나, 기시노 시다의 오후지나 얼마든지 주선해보지요. 사이 「너무 많아도 곤란해.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니까.²⁴⁾

23) 有馬座敷に太郎助下女に湯女の咄を聞ゆな聞とい 有馬宿湯壺より先湯女つばのあたいを問し不案内客土成 주 4)와 같은 책. p28.

24) 才「コフ姉さん。アノ台所に居た女は爰の嫁か、お娘か、年はいくつだね。下女すぎ「ハイ、十六で御坐り舛。才「若いに、まだ新造でおけばいいに、早くまゆを取たね。色男が有か。其男の面が見てへ。すぎ「イエ、アリヤ、小湯女と申ので御坐り舛。才「ナニ、いろおとこはなくて、湯女とはどつらういもんだ。すぎ「あれは御湯のお世話いたします娘湯女のみやと申舛。才「ヤア、おむすと聞ばありがてへ。今宵ぶつてしめよう。太郎「コレ、女中、あのおとこより、おれに世話はなだいしておくれ。今夜でも呼と来るかへ。すぎ「ハイ、夜は用事さへ済ますと、随分参り舛。太郎「花代はなんぼじや。すぎ「ハイ、いくらでも宜しう御座り舛。太郎「コウ女中。おれが先だから、わつちに世話してくんねへ。すぎ「

젊은 무스메 유나는 미혼임에도 눈썹을 지우고 이에 검은 칠을 한 오하구로(お齒黒)의 모습²⁵⁾으로 온천욕의 시중 뿐 아니라 유흥의 장소에 나아가 아리마부시 등의 노래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예는 손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온천장이 탕치의 공간 뿐 아니라, 유흥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네 쓰치나리는 『滑稽有馬紀行』에서 오사카 탕치 손님에 입을 빌어 유나와 매춘녀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사카 남자 「그거야, 교토나 오사카에서는 그렇지만, 여기는 양생의 온천장이므로, 저 유나는 바이조(매춘녀, 売女)와는 다르다. 입욕의 시중을 드는 여인이다. 그래서 자리에 부르니 값이 비싼 것이다. 이미 손님과 자는 일은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너는 모르는가? 다로 「그래도 유나를 손님이 부르지는 않는다. 오사카 남 「그것은 술 상대를 해서 흥을 돋우는 것이지. 샴시센을 치는 유나도 있지만 자리에 불려오면 그것도 안 된다. 큰북과 춤을 춘다. 알았어. 다로 「그렇습니다. (다로스케는 유나에 대해 처음으로 듣고 계산착오였음을 알았지만 이미 유나 두 명을 불렀으므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후략))²⁶⁾

오사카 남자로부터 다로스케에게 아리마의 유나는 온천욕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며 술자리에 응하여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일은 하지만, 바이조와 달리 매춘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되어진다. 이어서 저녁의 주연이 열리고 그 후 유나를 매입하여 동침할 것을 희망하는 다로, 사이로쿠 콤비에게 온천 숙소의 하녀 스기는 “이 아리마는 탕치의 공간이므로 누구라도 손님과 유나가 동침하면 이곳에 두지 않습니다. 이곳의 법도입니다. 유나들은 탕치의 시중이나, 오늘 밤과 같이 술자리의 상대가 되어 드릴 뿐입니다.”²⁷⁾라고 거절한다. 재차 유나와의 동침을 재촉하는 사이로쿠는 밤에 유나가 찾아와줄 것을 기대하며 방문을 열어두고 기다린다. 어두운 밤 열린 문으로 들어온 개를 유나로 착각한 사이로쿠가 큰 봉변을 당한다는 골계담으로 『滑稽有馬紀行』의 스토리는 전개

ハイハイ、左様おしやらいでも、おふたりの中へ御世話いたし舛。才「ヲヤヲヤ、男二人の中へ女一人来ては大変だが、又外にイいたば【女の事】はねへか。すぎ「ハイ、一人でお淋しふ御座り舛なら、川の屋のおみつさんか、岸の下のおふじさんでも、いくたりでも頼みませう。才「ヲヤ、大勢はあやまり。今一人あればいいね。 주 4)와 같은 책. p27.

25) 유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이다사카 요코씨에 의한 지적이 있음. 주 4)와 같은 책.p278. 참조.

26) 주 4)와 같은 책. p45.

27) 주 4)와 같은 책.p50.

된다.

즉 아리마 온천의 유나에게 있어서 손님들의 탕치를 위한 시중과 술자리에서의 동석은 손님들의 청에 의하여 응할 수 있지만, 잠자리의 상대는 법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일 대중탕인 유나부로의 발생과 연결되는 것으로 유나의 존재가 남성의 성적 욕구를 갈망하는 매춘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3-3. 사다메마쿠유(定幕湯)와 아이마쿠(合幕)

그러면 에도시대 아리마 온천의 입욕 형태는 어떠했는가. 『滑稽有馬紀行』에서 아리마 온천의 주인은 다로스케에게 온천욕의 형태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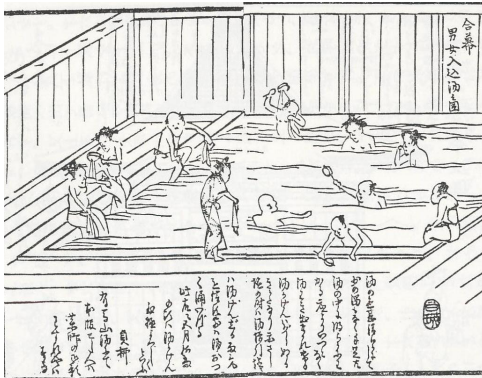
주인 「우선 입욕은 사다메마쿠유(定幕湯)라 하는 것은 몇 명이 사용하셔도 은(銀) 한 냥, 두 명이 사용해도 한 냥입니다. 그 까닭은 다른 손님을 입욕시키지 않고 당신들만 입욕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마쿠(合幕, 남녀 혼욕) 라는 것은 히토마와리(7일) 한 명당 은(銀) 2부입니다. 이것은 혼욕의 손님들, 다른 숙소의 손님들도 아이마쿠의 때는 모두 입욕이 가능하고, 또 느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안내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로 「어찌지, 사이코? 사이 「잠깐, 그러면 마쿠유와 아이마쿠는 온천수가 다른가요. 가격차가 나네요. 주인 「아니오, 온천수는 같습니다. 마쿠유라고 하면 전세의 막을 치고 당신들이 입욕할 때는 다른 손님은 들이지 않고 당신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히토마와리(7일)부터 35일 42일이라도 체재 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마쿠는 7일 한 사람에 은 2몬메씩으로 35일간 입욕하시면 두 명에 은(銀) 20몬메가 됩니다만 인원이 적으면 역시 아이마쿠(남녀 혼욕)의 쪽이 득이지요.²⁸⁾

아리마 온천욕의 방법은 전세 온천탕(定幕湯)과 남녀 혼탕(合幕)이 있고, 각각 입욕료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탕치의 방법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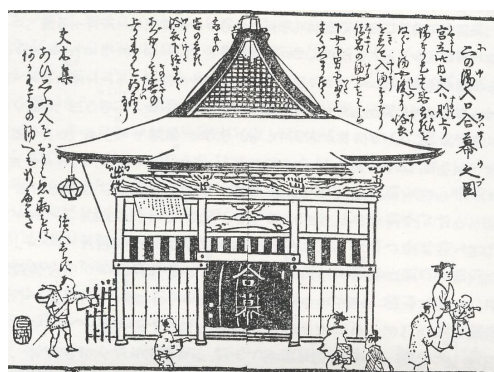
또 『滑稽有馬紀行』의 삽화를 통하여 온천욕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8) 주 4)와 같은 책, p25.

그림(4)



그림(5)



그림(4), (5)의 남녀 혼욕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삽화의 내용을 번각,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아이마쿠 남녀 혼욕의 그림

탕의 색 극히 청명해서 조금도 탁하지 않다. 손발이 모두 탕 안에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밑바닥에서 온천수가 솟아나와 흐르고 있음. 온천수는 약간 미지근한 편이다. 또 밑물일 때는 온천수가 불어나고, 썰물일 때는 온천수가 줄어든다. 우기를 재촉하기 전에는 온천수가 뜨겁게 솟아나온다. 까닭에 오월 장마철에는 온천수의 온도가 극히 좋다 한다.²⁹⁾

그림(5) 二の湯 입구

아이마쿠(合幕)의 그림

궁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아가리 유³⁰⁾이다. 여기에서 손님이 옷을 벗으면 유나가 뒤에서 유카다를 입도록 도와준다. 그 후 입욕을 한다. 여러 숙소의 유나를 비롯하여 하녀, 시중드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 사적인 손님의 의류, 유카다, 신발까지 맡아, 입욕 손님이 탕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31)

에도시대에 있어서 아이마쿠(남녀 혼욕)의 형태는 아리마 온천 뿐 아니라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그렇다고 알몸으로 입욕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는 훈도시(禪), 여자는 유모지라는 속옷을 입고 입

29) 주 4)와 같은 책.p38.

30) 입욕을 마치고 탕에서 나와 샤워를 하는 장소.

31) 주 4)와 같은 책.p36.

욕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마쿠의 입욕 형태의 모습을 『滑稽有馬紀行』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탕의 입구에 가니, 또 여인이 유카다를 받고 수건을 건넨다. 탕 쪽을 바라보니 좌우 앞 삼면이 나무판이다. 가운데는 욕조로 아이마쿠(남녀혼욕)의 남녀 다수가 입욕하고 있다. 더욱이 남자는 혼도시, 여자는 유모지로 탕 속에 들어간다. 32)

에도시대 온천의 원점은 7일 간을 기준으로 하는 탕치에 있다. 후에 교통로의 발달로 인하여, 이세 마이리, 구마노 모우데와 더불어 일반서민도 여행을 통한 온천 여행³³⁾이 가능하게 되어, 온천장은 탕치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나의 춤과 노래를 통한 문화 전수의 공간으로, 또 지역 주민과 여행자의 정보교환의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유흥의 공간으로도 확장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有馬日記』, 『滑稽有馬紀行』 등의 온천기행을 통하여 에도시대 아리마 온천의 탕치 주기와, 입욕 형태, 유나의 역할 등 온천문화의 일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온천기행에는 온천에서 이루어지는 탕치의 구체적 모습의 기술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입욕의 모습이 극히 일상에 관한 비속한 행위이므로 문학의 소재로 취급하기 어려웠던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有馬日記』, 『滑稽有馬紀行』은 아리마 온천을 소개하는 실용 본위의 안내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온천에서의 구체적인 묘사가 부족한 점도 이해할 수 있기는 하다. 즉 이다사카 요코씨의 “안내서로서 실용 본위로 설명되어 있는 문장이, 이윽고 이제까지의 雅문학에는 없었던 신선한 표현으로서……, 기행문을 생성해가는 것은 아닐까? 마치 에도시대 초기 유녀 평판기의 실용적 설명이, 이윽고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를 생성하듯이.” 34)라는 논에

32) 주 4)와 같은 책. p33.

33) 에도시대 후기에는 농민들의 온천여행도 일반화되어 수확기를 지난 농한기에는 〈아카오토시(垢落とし)〉, 〈호네야스메(骨休め)〉라 하여 온천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34) 주 4)와 같은 책. p307.

는 온천기행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보다 많은 온천기행 작품을 통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단, 탕치를 원점으로 하고 있는 온천기행이 〈여행(道行)〉을 통한 각 지역의 모습을 공간 이동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또 긴 여행 끝에 이윽고 도착한 온천장의 모습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비 일상의 격리된 별천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곳에서는 탕치를 위한 입욕(일상적인 비속한 행위)의 묘사 보다는 오히려 유희의 공간, 정보교환의 공간, 문화 전수의 공간으로서 확장되어 가는 공간 개념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외에도 온천 반즈케(番付), 유부미(湯文), 온천 스고로쿠(双六) 등 에도시대의 온천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금후 보다 치밀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參考文獻】

- 今野信雄 (1989) 『江戸の風呂』新潮選書.
 今野信雄 (1986) 『江戸の旅』岩波新書
 大根土成 『滑稽有馬紀行』(1827)(板坂耀子編 『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神崎宣武 (2004) 『江戸の旅文化』岩波親書
 木暮金太夫編 『錦絵にみる日本の温泉』国書刊行会, 2003
 信多純一、阪口弘之 校注(1999) 『古浄瑠璃説教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清少納言 『枕草子』日本古典文学全集
 万里集九 『梅花無尽蔵』(연도미상)(『続群書類従』第十二輯下、1927)
 松田忠徳 (2007) 『江戸の温泉学』新潮選書
 本居大平 『有馬日記』 (1782) (板坂耀子編 『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八隅蘆菴 『旅行用心集』(1810)(『生活の古典双書』八坂書房、1972)
 八岩まどか (2002) 『温泉と日本人』青弓社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神戸有馬温泉の旅館竜泉閣 홈페이지 참고 <http://www.ryuusenkaku.jp>.

要 旨

本稿では、江戸時代の温泉番付等により日本三代温泉といわれる温泉の中、有馬温泉を中心に展開される温泉案内書及び温泉紀行等を紹介する。その中、本居大平の『有馬日記』(1782)、大根土成の『滑稽有馬紀行』(1827)等を中心に江戸時代の温泉文化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大衆化の過程を辿っていったのかを考察してみた。

具体的には、七日を一回とする湯治のシステム、入浴の形態、湯女の存在と彼女らをめぐって行われる芸能伝授の場面と逸話等多様な形での温泉文化が読み取れる。

しかし、温泉紀行の中には、温泉で行われる湯治の具体的な様子についての記述はあまり見当たらない。それは、おそらく、服を脱いで身体を露出する入湯の行為がごく日常に関する卑俗なことであったから、文学の素材として取り入れにくい点もあったであろう。

江戸時代の温泉の原点は七日間を一回とする湯治にある。江戸時代になると交通路の発達により、伊勢参り、熊野詣でとともに一般庶民も温泉旅行が可能になり、温泉場は湯治の空間だけではなく、湯女による文化伝授の場、また、地域住民と湯治客の間の情報交換の場、遊興の空間として拡張さ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有馬温泉、温泉紀行、温泉文化、湯治システム、湯女、定幕湯、合幕、文化伝授の場、遊興の場、

투 고 : 2010. 8. 31
1차 심사 : 2010. 9. 11
2차 심사 : 2010. 9. 25